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기 호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선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 부녀회를 통해 아파트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이 주민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었다.

를 붙여놓았고, 서명을 받았다는 등, 다수결로 하자는 등,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 마주보고 다투었다. 물론 나 같은 전세 세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권리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의 어떤 사안들과도 닮은 점이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마다 적잖은 고민

자전거 여행이나, 음식이나

거리를 던져주었다. 문제는 역시 일의 선후가 될 터인데, 어떤 쪽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어느 의견이 더 긴급한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입장이 바뀌는 모양이었다.

영업을 차를 모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주차 문제는 당장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일이었고,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일 못 지않게 삶의 질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이사를 해, 분수대가 세워졌는지 그 반대 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내심 나는 분수대가 세워지지 않을 바랐다. 처음엔 그것이 삶의 질

문제보다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내 나름대로의 태도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그냥 세입자의 시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차피 떠날 공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잠잠하기를 바라는, 여행자와도 흡사한 태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 중에는 '자전거도로' 건설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총 1천728km 길이로 건설될 예정인 자전거도로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이를 각 지자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시켜 권역별 테마노선으로 개발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 모양이다.

한데, 이 '자전거도로'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대부분 그 목적을 '레저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다. 강줄기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나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강'과 '자전거'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생활'보다는 '여가' 쪽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그 목적 중 하나가 '관광용'임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로가 완공된다면 아마도 일반인들의 시선 그대로 '레저용'으로 더 많이 이용될 것이 뻔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다른

사안들보다 더 긴급한,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해야 할 만한 일인가?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들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일보다 붉은색 자전거도로를 전국 강가 옆에 까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어떤 가치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계속 던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그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답변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5년 단위로 바뀌는 정권은 먹고 나면 소화가 되어버리는 별다른 티도 나지 않는 급식보다야, 한 번 짓고 나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는 도로 건설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거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대부분 2012년을 완성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또한 그런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든다. '포퓰리즘' 정권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기간만 생각하는 것, 눈에 확 띄는 사업만 하는 것, 전세 세입자와도 같은 시선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금호타이어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상이 결렬된데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2.34%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노조는 회사 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고 오는 16일 완료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성사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광주·전남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사·도민들이 금호타이어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지역경제에서 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비록 쟁의행위는 가결됐으나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회사나 노조 모두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사측은 무모한 확장 경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노조도 타협 없는 강경투쟁을 지양하고 현실을 직시해 사측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3개월 가까이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일박한 것은 물론 협력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채권단 역시 협력업체나 노동자의 어려움을 방관만 하지 말고 최소한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보여주듯이 노조와 경영진이 경영혁신 및 자구 노력에 합심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지역민들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상생 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고대하고 있다.

화순농협의 '보복성 인사' 그대로 둘 것인가

일선 농협이 왜 이 모양인가. 신안 임자농협에선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이 둔선거로 졸졸이 구속되는가 하면 화순농협은 조합장이 선거에 당선된 뒤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임자농협은 지난 1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후보자 5명 중 4명이 구속되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관원자 15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화순농협은 '선거 관련 보복성' 인사로 해당 임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농협 측은 조합장 취임 한달여만인 지난 4일 단행된 인사에서 뚜렷한 대상자 선별기준이나 원칙없이 3급(팀장·상무) 5명, 4·5급 2명 등 7명을 타 조합에 발령을 냈다고 한다. 전체 직원 70여명에게 일괄 교유인사 동의를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렇듯 별개 법인인 타 조합에 인사조치를 했다

근로 조건에서 현 조합에 비해 처우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일부 간부 직원은 해당조합에 직급이 없어 현재까지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조합장이 선거기간에 자신을 도와준 인사도 교류대상에 포함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스스로 선거부정을 인정하는 셈이다. 기준이나 원칙이 지켜진 인사라면 해당 임직원들이 "선거기간 현 조합장을 지지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자신들을 타 조합으로 전출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할 수 있겠는가.

농협의 도덕적 해이는 조합장 선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은 그동안 수많은 비리로 인해 현재 개혁대상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전횡을 좌시하는 한 농협개혁은 불가능하다.

無等鼓

우수도 경침도 지났는데, 봄 눈이 온 세상에 어지럽다. 이제 막 물 오르기 시작한 나무 가지에도 흰 눈이 가득 쌓였다. 아침 출근 길도 한바탕 뭉살을 앓았다.

9일 저녁부터 10일 아침까지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큰 눈이 내려 전국을 움켜쥔 듯했다. 기상청은 봄날엔 북쪽 대륙에서 들어온 매우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비교적 따뜻하고 습기 많은 남쪽의 공기 덩어리와 부딪치면서 큰 눈이 내리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에게 봄에 내리는 눈, 춘설(春雪)은 반가운 존재였다. 남송의 시인 나대경은 '한 사발 봄 눈은 제호보다 뛰어나다'고 읊었다. 여기서 제호는 정제한 버터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말한다. 차(茶) 대신 봄눈을 사발에 담아 녹여 먹는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무등산에 있는 춘설현(春雪軒)도 이 시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춘설은 과거(敝格)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눈, 봄에는 꽃이라는 정해진 틀을

깨트리고 봄 속으로 겨울이 역류하는 놀라움이다. 정지용이 그의 시 '춘설'에서 "눈 열자 섣뫼!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고 노래한 것은 아지랑이나 꽃이 찾아올 즈음에 눈이 왔기에 "섣뫼!"이 라 했을 듯하다.

춘설은 또한 시새움이다. 꽃피는 봄을 색내는 '꽃샘'의 대명사다. "춘설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동달동하야라"는 조선시대의 매화가 (梅花歌)는 이런 심정을 잘 표현했다. 작자는 기생을 매화와 춘설로 비유해 사랑을 빼앗긴 '매화'가 젊은 '춘설'에 대한 원망과 질투를 노래하게 했다.

봄은 왔으며 봄이 아니기는 정지권이 더 제호보다 뛰어나다'고 읊었다. 여기서 제호는 정제한 버터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말한다. 차(茶) 대신 봄눈을 사발에 담아 녹여 먹는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무등산에 있는 춘설현(春雪軒)도 이 시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춘설은 과거(敝格)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눈, 봄에는 꽃이라는 정해진 틀을

춘 설



기 고

양 문 택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6·25전쟁 60주년,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광복군 창군 70주년(9월 17일), 청산리 대첩 9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깊은 기념일이 많은 해이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적 기념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전승시켜 나가는 일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모른다'고 답했고, '6·25 전쟁 발발연도에 대해 47.9%가 모른다'는 등의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서 현재의 역사 교육과 세대간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과거를 돌이켜 보지 않고 현재만 중시하는 것과 과거의 유산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일제의 꾀박 속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버린 애국선열들과 6·25전쟁에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다

여순감옥에 투옥돼 1901년 3월 26일 순국했다. 2010년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꼭 10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또한 1960년 4월 19일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 쫓겨난 광복 후 최초의 시조급직인 4·19혁명도 50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잊을 수 없는 5·18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순종황제로 하여금 양국(議國)의 조칙을 내리도록 해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외에도 6·25 전쟁 60주년 등 올해는 선열의 거룩한 정신과 발자취를 되돌아 볼 기념일이 유독 많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다게시 마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자국의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의 40%가 '3·1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다. 즉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헤쳐 나갈 수 있고 더불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세기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치와 빼어난 민족정신의 비극, 그리고 산업부흥과 민주화를 통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이 나라를 위해 먼저 가신 선열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세심한 배려는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훈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유공자와 그 가족을 찾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는 일을 실천하자. 이 작은 실천이 이어져 보존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목포보훈지청장〉

건강 해치는 무절제한 음주문화 사라져야

우리의 술 문화는 너무나 많다. 매주 목요일이면 팀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차까지 폭탄주를 돌려 대는 회식 분위기에 적응해야하고 팀 분위기를 깰 수도 없어 술잔을 거부하기 어려우니 술로 몸이 망가지는 것 같고 금요일엔 은종일 숙취로 괴롭다.

술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는 오명도 있다.

적절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생활의 활력이 되며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적당히 취해 건강이 풀리던 마음마저 열리는 것 같아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무절제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음주문화, 정말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의로 칼럼



최 범 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요즘, 범국가적으로 저출산 해결책으로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3회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도 3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불임부부는 1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치로 봐도 당장 많다고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아기를

불임증의 극복에서 마음의 짐을 버리지 않고서는 늘 스트레스를 안고서 시술에 임하게 돼 심리적으로도 평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은 유별나게 정이 많아 특히 아기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경우 사내내 팔촌까지 소문이 다난다. 결국, 문제 해결은 이 분야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지만, 이전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후에야 외래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계획이 서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치료를 환자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임' 보다 '난임'이 맞는 표현

갖는데 어려움을 갖는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결혼 후 부부가 1주일에 2~3회 정도의 부부관계를 갖으면서도 1년이 지나도 임신소식이 없다면 불임증을 의심해 봐야한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결혼연령이 늦춰지거나 스트레스, 비만, 환경오염, 흡연, 음주, 운동부족, 잦은 유산 등으로 인해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임의 원인은 남성요인 25~40%, 여성요인 40~45%이다. 부부 함께 원인인 경우와 원인불명인 경우가 10%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 대부분 여성의 문제로 쉽게 생각한다. 절대로 불임증의 극복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종종 불임클리닉을 찾는 부부들의 관심사는 치료의 지름길을 먼저 알고자 한다. 그래서 나의 외래 진료실 입구에는 교과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을 써서 문에 부착해 놨다. 불임증 치료의 지름길 (1)마음을 비우십시오(마음의 평화) (2)주변사람을 멀리하십시오(올바른 선택) (3)자신감을 가지십시오(확신과 믿음) (4)주치의와 한 팀이 되십시오(진료의 신뢰) (5)원칙적인 치료를 선택하세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먼저 불임증을 겪어본 주변사람들의 경험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문제는 다르므로 상담을 받고 불임증 원인을 특성 있고 치료 방법이나 시술 시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불임증치료에서 자연적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환자나 의사에게도 최대 목표라 생각한다.

요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예상 밖의 금메달을 획득한 어린 우리 선수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노력과 함께했던 코치, 감독들의 노고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와 가족에게는 주치의와 함께 노력해서 임신 소식을 접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한 후 모두 기뻐하는 것 못지않을 것이다.

불임증은 전문클리닉을 찾아서 원인 규명 후 적절한 치료에 임하면, 1년 이내에 60~70% 부부는 임신성공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전문의사와 임신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불임(임신할 수 없다)이란 용어보다는 난임(임신과정에 어려움이 있다)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엘병원원장>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